

웹소설 키워드를 통한 이용 독자 내적 욕구 및 특성 파악

조수연¹ · 오하영^{2*}

Identifying Reader's Internal Needs and Characteristics Using Keywords from Korean Web Novels

Suyeon Jo¹ · Hayoung Oh^{2*}

¹Under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Culture&Content, Ajou University, Suwon, 16499 Korea

^{2*}Assistant Professor, DASAN University College, Ajou University, Suwon, 16499 Korea

요 약

모바일 상에서 연재되고 소비되는 웹소설은 다른 문화콘텐츠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포착해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본 논문은 웹소설 키워드 정보를 수집해 웹소설의 주요 모티프 및 트렌드를 파악하고, 나아가 기존 논문들과 연관 지어 이용 독자의 내적 욕구 및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접근성이 높고 가독성이 편리한 모바일 환경과 관련해 현대물과 성인 작품이 인기가 높았다. 남자주인공은 웹소설 상에서 이상적으로 그려지는 경향이 있었으나, 현재 남자주인공의 주요 키워드는 2000년대 초와 비교했을 때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곧 현대인들의 젠더 관념의 변화를 시사한다. 이와 상반되게 여자주인공은 내면에 상처를 지닌 캐릭터가 인기가 많았고, 이에 대한 원인 중 하나로 사회구조적인 환경 속에서 좌절을 겪어야 했던 현대 여성의 현실을 설명했다. 본 논문은 웹 크롤링의 한계로 성인 작품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을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정량적 분석이 미흡했던 기존 웹소설 연구들에 키워드라는 파라텍스트를 활용하여 현대인들의 내적 욕구 및 특성을 분석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ABSTRACT

Web novels that are consumed on mobile devices are characterized by capturing one aspect of our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llect the keywords from web novels, to identify trends of web novels, and further to analyze the covert needs and characteristics of readers in connection with the existing research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novels with modern backgrounds and adult novels were popular in relation to easily readable and accessible mobile environment. Male characters tend to be ideally depicted in web novels. In contrast, characters with inner scars were popular among female characters. Although this study did not conduct an in-depth analysis of adult novels due to the limitation of web crawling, it is meaningful that this study analyzed modern people's inner needs and characteristics using the para-text like keywords in existing web novel studies that previously lacked quantitative analysis.

키워드 : 웹 소설, 독서욕망, 모티프, 크롤링, 현대인의 심리분석

Keywords : Web Novel, Desire of Reading, Motif, Crawling, Psychological Analysis of Modern People

Received 22 October 2019, Revised 6 November 2019, Accepted 22 November 2019

* Corresponding Author Hayoung Oh (E-mail: hyoh@ajou.ac.kr Tel:+82-31-219-3560)

Assistant Professor, DASAN University College, Ajou University, Suwon, 16499 Korea

Open Access <http://doi.org/10.6109/jkiice.2020.24.2.158>

print ISSN: 2234-4772 online ISSN: 2288-4165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 ©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I. 서 론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기기는 현대인의 일상생활에 있어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많은 이들이 스마트폰 속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게시글과 댓글로 의견을 주고받기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며 친구 활동을 이어간다. 기존에 오프라인 또는 PC 환경에서 하던 활동들이 모바일 환경으로 옮겨온 셈이다.

마찬가지로 게임, 음악, 영상, 만화와 같은 문화콘텐츠들도 모바일 환경에 맞추어 변화를 모색해왔다. 좁은 화면이라는 환경적 제약을 고려한 터치식의 모바일 게임 어플리케이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10분 내외로 짧게 분절되어 제공되는 웹 드라마, 스크롤 방식을 통해 내용이 전개되는 웹툰 등이 그것이다. 이들이 가지는 의의는 기존의 게임, 음악, 영상, 만화 문화를 매개하는 동시에 디지털 매체의 특성을 포함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간다는 점이다. 또, 우리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향유되며 우리 시대의 한 단면을 드러내는 콘텐츠로도 기능한다.

이러한 맥락을 같이 하는 웹소설은 모바일 기기의 보편화와 관련되어 생겨난 현대인의 새로운 문학 소비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웹소설이라는 용어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2013년에 ‘네이버 웹소설’ 서비스를 런칭하며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1] 웹소설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전에도 PC 환경에서 이용자들이 창작하고 향유하던 소설을 인터넷 소설, 사이버 소설 등으로 불려왔다.[2] 그러나 웹소설 시대가 도래하며, 인터넷 속 소설들은 플랫폼의 체계적인 시장 시스템 하에 산업화되고 대중화되기 시작했다.[3] 플랫폼 내에서 생산, 소비, 유통되는 소설은 아마추어의 작품이 아닌 상품으로만 들어지고[4], 완결된 이후로는 전자책의 형태로 연속하여 향유된다.

기존 웹소설 연구에 따르면, 웹소설은 모바일이라는 소비 환경에 따라 문자 텍스트를 기본으로 하되 여러 감각을 환기하는 멀티모드적인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5] 네이버 웹소설의 경우 인물의 대사 앞에 캐리커처를 삽입해 이용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있으며[1], 많은 웹소설들은 작품 표지에 등장인물의 모습이 담긴 일러스트를 활용해 시각적인 자극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작가의 말과 댓글 기능으로 창작자는 손쉽게 독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야기를 수정하기도 하는데, 이처럼 웹소설 환경 내에서는 창작과 수용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

다.[1, 4] 모바일 환경은 PC보다 많은 내용을 담기에 제약이 많기 때문에 웹소설의 글은 회차별로 분절되어 연재되고, 가독성이 높은 짧은 문단으로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작품의 플롯은 유기성보다는 흥미나 긴장감에 좌우되고, 시장 논리와 맞물려 작품성보다는 상업성을 추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4]

웹소설의 내용상으로는 로맨스 서사를 기본 골격으로 하여 주변부로 다뤄졌던 장르문학의 판타지, 무협 서사를 포괄하기도 하고, 대중문화의 다양한 소재와 모티프를 포함하고 있다.[3, 5] 웹소설 생태 내에서 인기를 얻은 서사구조나 소재는 여러 창작자에 의해 반복하여 변주되며, 장르의 공식을 형성한다. 이는 진부하거나 틀에 박힌 생각 등을 이르는 클리셰로 기능하며, 이전에 비슷한 소재를 다룬 작품을 읽어본 독자는 큰 장벽 없이 다음 소설을 읽어나가게 된다.[2] 그로 인해 대부분의 웹소설은 개별적인 소설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단위를 가리키는 특정 모티프(motif)를 내포하고 있으며, 특정 모티프에 거부감이나 싫증을 느낀 독자는 해당 모티프를 지닌 작품을 자발적으로 피하기도 한다. 즉, 개별 작가만의 개성보다는 반복적인 클리셰를 통해 형성된 장르의 공식이 더 중요해지는 것이다.[5]

또한, 웹소설 시장은 창작, 소비, 유통이라는 전 과정이 플랫폼에 집약적인 구조이다.[2, 4] 그렇다 보니 이용자는 플랫폼 환경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고, 많은 이용자를 사로잡기 위해 플랫폼 간 경쟁과 다변화는 심화되어 왔다. 플랫폼 사이에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고안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로 ‘키워드’와 관련한 서비스가 있다. 리디북스[6], 북큐브[7], 조아라[8], 허니문[9]과 같은 전자책 및 웹소설 플랫폼에서 제공 중인 ‘작품별 상세 키워드’와 ‘키워드 검색 기능’은 웹소설의 분위기, 배경, 캐릭터 특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자는 작품을 읽기 전 작품 표지, 줄거리, 작가명, 작품 순위 외에도 작품의 모티프를 설명하는 키워드를 통해, 작품 소비를 고려할 수 있는 셈이다.

본 연구는 웹소설 이용자에게 소구력 있는 모티프를 파악하여 웹소설 이용자가 가진 독서욕망을 진단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여기서 ‘독서욕망’이란 “70-80년대 서구권에서 논의된 독자비평과 수용미학에서 차용된 용어로 작품 속의 특정한 장치나 서사를 즐겨 소비하는 독자의 욕구”를 뜻한다.[10] 국내 연구로는 ‘한국

근현대 베스트셀러문학에 나타난 독서의 사회사’, ‘한국 웹소설 회귀 모티프 연구’ 두 건에서 유일하게 독서 욕망을 다루었으며, 본 연구는 회귀 모티프를 포함한 웹소설 내의 인기 있는 여러 모티프에 대해 다루려 한다.

이를 위한 일차 과정으로 전자책 플랫폼 내 스테디셀러 웹소설 작품이 공통적으로 갖는 키워드를 텍스트 마이닝 방식을 이용해 추출하였다. 이는 웹소설이 상업적인 대중문화이기 때문에 판매량이 높은 스테디셀러가 이용자의 독서욕망을 잘 드러내는 자료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차 과정으로 해당 인기 키워드(모티프)는 이용자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그를 기반한 이용자의 독서욕망은 무엇인지 인문사회계열의 기존 문헌들을 근거로 분석하였다.

웹소설이 웹이라는 환경에서 존재하기에 데이터 분석이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웹소설 연구에서 데이터 분석을 접목한 연구는 시도된 바가 없다. 또한, 웹소설 이용자의 수가 점차 증가하며 다양한 문화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웹소설 이용자에 대한 연구도 수치적인 통계 외에는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못했다. 그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해 웹소설 이용자의 특성을 파악하기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II. 데이터 수집 및 추출

2.1. 연구 대상 및 범위

연구 대상은 전자책 유통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리디북스, 북큐브와 웹소설 연재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조아라를 선정하였다. 이 중 키워드의 수와 카테고리가 가장 다양하고, 유저의 이용률이 높은 리디북스의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본 연구에 이용했다. 그 외 북큐브와 조아라의 데이터는 본 연구에 보조적으로 활용했다. 이 중 조아라의 경우 프리미엄 카테고리에 한해서만 키워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작품에 사용된 키워드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 해당 회사[8]로부터 내부 자료를 공유 받아 분석에 참고했다.

전자책 플랫폼에서는 기본적으로 장르를 크게 ‘로맨스’, ‘판타지/무협’, ‘BL(Boy’s Love라는 뜻으로 남성들끼리의 로맨스 서사물)’라는 세 가지로 구분한다. 그러나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판타지/무협’ 장르에는 키워드 사

용이 전반적으로 미진하여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 이용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로맨스’와 ‘BL’ 장르 내의 웹소설 작품만을 다루고 있다.

대략적인 연구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는 리디북스와 북큐브 사이트에서 소개하는 스테디셀러 200위 웹소설 작품의 웹소설 상세 키워드를 수집했다. 또한, 그에 대한 대조군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전체 웹소설 작품의 상세 키워드 역시 수집했다. 수집한 키워드에 대해 데이터를 정제하고, 키워드를 빈도수대로 정렬하여 인기 있는 키워드를 확인했다. 그리고 이를 기존 문헌과의 연관성을 찾아 분석하여, 로맨스와 BL 장르의 웹소설 이용자의 독서욕망에 대해 진단하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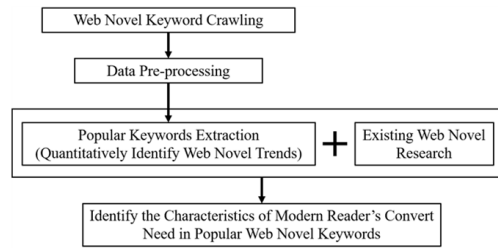


Fig. 1 Web Novel Keyword Analysis Flowchart

본 연구는 웹 크롤링의 한계로 성인 인증 후 열람이 가능한 웹소설 작품에 대해서는 키워드 추출을 진행하지 못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리디북스에 한해 스테디셀러 작품의 경우, 수동으로 해당 키워드들을 수집했다.

2.2. 데이터 수집 및 추출

데이터 수집은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리디북스와 북큐브 사이트 내의 스테디셀러의 작품 리스트와 각각의 작품의 작품별 상세 키워드 부분의 데이터를 크롤링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그림 2는 리디북스의 작품별 상세 키워드 부분을 캡처한 것으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빅 데이터를 수집했다.



Fig. 2 Crawling Part of Ridibooks Keyword (captured)

리디북스와 북큐브 사이트 내의 스테디셀러의 작품 리스트와 각각의 작품별 상세 키워드를 크롤링하는 과정은 표 1의 의사 코드와 같다. 첫 단계로 플랫폼 내 장르별 스테디셀러를 보여주는 사이트 URL에서 각 작품의 순위, 제목, 시리얼 넘버를 크롤링한다. 일반적으로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작품이 나열되어있기에 페이지 수만큼 반복하여 크롤링 후 정제해 리스트를 생성했다.

다음 단계로는 각 작품별 상세 페이지 URL에 접근해 작품별 상세 키워드를 크롤링했다. 연구 대상인 리디북스와 북큐브의 경우 작품별 상세 페이지의 URL은 끝의 작품별 시리얼 넘버만 바뀌는 식으로 구성되어있기에 앞 과정에서 수집한 시리얼 넘버를 이용했다.

그 후 수집한 키워드를 대상으로 TF(Term Frequency)가 높지만 작품 내용과 무관한 키워드는 제외하고, TF-IDF(Term Frequency Inverse Document Frequency)는 높아서 작품 내용과 관련한 부분만을 선별해 분석에 활용했다. 즉, 그림 2와 같은 경우라면 ‘#별점 1000개 이상’과 ‘5000원~1만원’은 제거하고 ‘현대물’, ‘첫사랑’과 같은 키워드를 분석에 이용했다. 그리고 데이터 수집 및 추출 과정에서는 데이터 분석에 용이한 R언어와 Rstudio 에디터 환경을 사용했다.

Table. 1 Pseudocode Web novel Keyword Webcrawling

```

t : webnovel title
r : webnovel ranking
i : webnovel id(serial number)
k : webnovel keywords
L : page URL in which popular novels are listed in order
D : page URL for detailed descriptions of a novel

1. function Webnovel List Webcrawling (L)
2. for each p in page number do L←Lp end for
3. read about t, r, i in html (L)
4. refine the data so that only t, r, i remain
5. end for
6. end function
7. function Webnovel Keyword Webcrawling (D)
8. for each i in webnovel id do D←Di end for
9. read about k in html (D)
10. refine the data so that only k remains
11. end for
12. end function
    
```

2.3. 데이터 분석 결과

연구 대상이었던 사이트들의 카테고리, 키워드, 등록 가능한 키워드 수는 각각 달랐다. 리디북스의 경우 카테고리는 장르/배경, 소재, 관계, 남자주인공과 여자주인공의 특징, 분위기/기타가 있었으며, 등록할 수 있는 키워드 개수의 한계는 없었다. 북큐브의 경우 카테고리는 장르/배경, 소재/관계, 남자주인공, 분위기/기타가 있고, 등록할 수 있는 키워드 개수가 5개 이내로 리디북스에 비해 제한적이었다. 조아라 역시 카테고리나 키워드 수가 더욱 제한적인 조건이었다. 그럼에도 데이터 분석 결과에 있어 어느 정도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 플랫폼 간 차이는 적다고 할 수 있다.

리디북스에서는 성인 작품을 포함한 로맨스와 BL 장르의 스테디셀러 200위 작품 각 200개를 우선적으로 추출하였다. 리디북스의 전체 작품의 경우 로맨스 장르는 성인 작품을 제외한 4,320개, BL 장르는 성인 작품을 제외한 522개에 대한 키워드 분석 결과를 얻었다. 북큐브에서는 성인 작품을 제외한 로맨스와 BL 장르의 스테디셀러 200위 작품 각 200개를 우선적으로 추출하였다. 북큐브의 전체 작품의 경우 로맨스 장르의 31,334개 중에서 성인 작품을 제외한 키워드 값이 추출되었고, BL 장르에서도 11,494개 중 성인 작품을 제외한 키워드 값이 추출되었다.

리디북스의 키워드 분석 결과는 표 2, 북큐브의 키워드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각 열은 인기 로맨스 작품, 전체 로맨스 작품, 인기 BL 작품, 전체 BL 작품으로 구성되어있다. 지면 관계상 각 행은 키워드를 빈도수 순대로 정렬하여 상위 10개만을 수록했다.

이를 통해 성인 작품을 포함한 자료와 그렇지 않은 자료, 그리고 스테디셀러라는 인기 작품과 전체 작품이라는 자료들을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인기 키워드를 뽑았다. 작품의 배경과 관련해서는 ‘현대물’ 키워드가 압도적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또한, 성인 작품을 포함한 자료와 그렇지 않은 자료를 검토하며 성인 작품과 관련한 여러 키워드가 인기가 많은 점을 발견했다. 이어 남자주인공과 여자주인공의 키워드에도 각각 가진 나름의 공통성을 발견했다. 이때, BL 작품은 공과 수라는 두 인물을 다루지만, 남자주인공과 동일한 맥락에서 소비된다는 점에서 남자주인공의 특성으로 파악했다.

Table. 2 Keyword Analysis of Ridibooks's Web Novel

	Popular Romance Novel (200)	Entire Romance Novel (4320)	Popular BL Novel (200)	Entire BL Novel (522)
1	#Modern (131)	#Modern (1888)	#Modern (120)	#Modern (322)
2	#Man with full sexual energy (105)	#Affectionate man (1003)	#Obsessed top (89)	#Affectionate top (237)
3	#Competent man (103)	#Devoted man (900)	#Affectionate top (83)	Slice of life (163)
4	#Possessiveness/Jealousy (103)	#Picky man (824)	#Beautiful bottom (77)	#Beautiful bottom (125)
5	#Hardcore (101)	#Woman with a broken heart (767)	#Beautiful top (72)	#Affectionate bottom (120)
6	#Woman with a broken heart (89)	#Man with a broken heart (712)	#Strong top (70)	#Calming (117)
7	#First love (70)	#Competent Man (685)	#Top with full sexual energy (64)	#From friend to lover (115)
8	#Straight man (man recklessly approaching a heroine) (65)	#First love (661)	#Younger top (55)	#Beautiful top (114)
9	#Affectionate man (64)	#Reunion (658)	#Affectionate bottom (52)	#Sweet (112)
10	#Obsessed man (58)	#Fantasy (652)	#Third-person point of view (51)	#Innocent bottom (111)

Table. 3 Keyword Analysis of Bookcube's Web Novel

	Popular Romance Novel (200)	Entire Romance Novel (-)	Popular BL Novel (200)	Entire BL Novel (-)
1	Fantasy (75)	Modern (1313)	Affectionate top (86)	Affectionate top (142)
2	Modern (61)	Affectionate man (547)	Modern (71)	Modern (130)
3	Competent Man (43)	Fantasy (535)	Beautiful top (52)	Beautiful top (77)
4	Affectionate man (40)	Reunion (463)	Fantasy (42)	Beautiful bottom (67)
5	History (39)	Picky man (413)	Academy or Campus (42)	Fantasy (67)
6	Fateful encounter (32)	History (379)	Sweet (38)	Academy or Campus (63)

	Popular Romance Novel (200)	Entire Romance Novel (-)	Popular BL Novel (200)	Entire BL Novel (-)
7	Reunion (28)	Sweet (371)	Beautiful bottom (38)	Slice of life (60)
8	Sweet (25)	Competent man (364)	Slice of life (34)	Unrequited love (54)
9	Time travel (23)	Romantic comedy (330)	Unrequited love (30)	Sweet (47)
10	Rich man (22)	Devoted man (330)	Affectionate bottom (28)	Affectionate bottom (44)

III. 데이터 결과 해석

3.1. 작품의 배경

작품의 배경과 관련해서는 ‘현대물’ 키워드가 가장 빈도가 높았다. 리디북스의 경우 장르와 인기 유무 상관 없이 ‘현대물’ 키워드의 빈도가 가장 높았고, 북큐브의 경우 로맨스 인기 분야를 제외하고 현대물이 빈도가 가장 높았다. 웹소설 작품의 다른 배경으로는 판타지물, 역사물 등이 있는데, 기존 웹소설 연구들은 현실 속 제약을 극복하는 대리만족 욕구와 관련해 판타지물의 회귀[10], 설화, 초월적 인물[11, 12] 소재나, 또는 역사물의 궁중 로맨스[3] 소재에 대해 연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이 초점을 맞춰온 것과 달리, 현대물 작품이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다는 점은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발견한 뜻밖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거의 모든 결과에서 현대물 키워드가 빈도가 높았다는 점은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웹소설이 모바일이라는 환경적 제약 극복과 관련해 추구하게 된 ‘가독성’이라는 원칙과 관련된 현상으로 보인다. 기존 연구에서도 웹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가독성을 꼽으며[1-2, 4, 13], 읽기 쉬운 문체와 문단 구성, 이해하기 쉬운 단순한 서사구조, 시각적인 이해를 돕는 캐리커처와 일러스트 등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되었다. 이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소설의 배경에도 모두가 이해하고 접근하기 쉬운, 즉 가독성이 높은 현대 배경을 소설의 배경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간 논의된 바와 같이, 현대 배경을 다루는 웹소설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의 심각한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는 웹소설이 흥미와 유

희 위주로 소비된 지점과 관련 있다. 즉, 현실에 지친 독자들이 더욱 단순하고 쉬운 세상을 바라는 소망을 반영한다고도 할 수 있다.

3.2. 작품의 유형

조사 당시 리디북스의 스테디셀러 200위 작품 중 로맨스 장르는 181개 작품(90%)이, BL 장르는 192개 작품(96%)이 성인 인종이 필요한 웹소설로 확인되었다. 스테디셀러가 아니더라도 전자책 플랫폼 내에서는 유통되는 작품의 상당수가 성인 작품일 정도로 성인 작품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그와 관련해 리디북스 스테디셀러 로맨스 장르의 키워드로 ‘절륜남(2위)’, ‘소유욕/독점욕/질투(4위)’, ‘고수위(5위)’, ‘집착남(10위)’가 확인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리디북스 스테디셀러 BL 장르의 키워드로 ‘집착공(2위)’, ‘절륜공(7위)’, ‘능욕공(14위)’ 키워드가 확인되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로맨스 소설이 종이에서 웹으로 이동하며 성인 작품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으나, 이는 욕망의 분출구 역할을 하는 인터넷 공간의 특성에 불과하다고 한다. 또한, 여성들이 읽는 성인 소설은 남성향의 예로 소설과 비교해볼 때, 등장인물의 감정과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는 로맨스 소설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분석되었다.[14]

다만 성인 작품을 분석에 포함했을 때 주요하게 확인된 키워드를 살펴보면, ‘소유욕/독점욕/질투’나 ‘집착남’과 같이 소유욕과 집착에 관련한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현대인의 관계중독 증상과 연관된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대 사회가 개인주의화(Individualism) 되면서 현대인들은 더 많은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끼게 되었다. 일부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관계중독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 증상은 남성보다 관계지향적인 경향이 높은 여성에게서 심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서울중독심리연구소의 김형근 소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그가 치료한 관계중독 환자는 30대 여성 환자가 가장 많으며, 그중 남성은 10%에 불과하다고 한다.[15]

이러한 점을 종합했을 때, 남자주인공이 집착과 소유욕을 드러내는 성인 소설 모티프가 인기가 높은 것은 집착이라는 이름의 사랑이라도 자신의 외로움을 채워줄 이성을 갈망하는 현대 여성의 씩씩한 초상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3.3. 남자주인공의 특성

북큐브의 경우 여자주인공에 대한 카테고리가 따로 없었지만, 리디북스의 경우 남자주인공과 여자주인공의 카테고리가 각각 존재했고, 또한 그 내용과 개수도 거의 유사했다. 하지만 인기/전체 차트의 상위권을 살펴보면 여자주인공보다 남자주인공에 대한 키워드가 더 많이 발견되었다. 또한, 로맨스 장르에서는 ‘능력남’, ‘다정남’, ‘순정남’의 키워드가, BL 장르에서는 ‘다정공’, ‘다정수’, ‘미인공’, ‘미인수’의 키워드가 인기 차트에서 두드러졌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로맨스 소설 속 남자주인공이 어떤 자질을 지녔는지 분석하면 그 시대 여성들이 추구하는바, 다시 말해 욕망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한다.[1] 또 다른 연구에서는 미국의 역대 로맨스 소설 속 남자주인공의 직업들은 지위, 자신감, 능력과 관련이 있으며, 남자주인공은 지배 서열의 최고점에 이른 소위 ‘알파남(Alpha Male)’으로 그려진다고 했다. 하지만 태생과 직업 정신과 외모가 아무리 완벽해도 알파남은 남자주인공이 갖추어야 할 특성 중 절반에 불과하다. 연구자들은 로맨스 소설 속 남자주인공을 ‘야생 코코넛’에 비유해 분석했다. 로맨스 소설 속 남자주인공은 알파남이라는 딱딱하고 거친 껍질을 지니고 있지만, 내면은 달콤하고 부드러운 면을 지닌 사람이며, 이 달콤한 면은 오로지 여자주인공에게만 선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4] 한국의 웹소설에서도 동일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능력남’ 키워드를 알파남과 연관 짓고, ‘다정남’ 키워드를 내면의 달콤한 면과 연결 짓는다면, 이는 본 연구와 유사한 결론을 지니고 있다.

반면, 전체 로맨스 소설 차트에 4위로 매겨진 ‘까칠남’은 인기 로맨스 소설 차트에서 순위권에 들지 못했다. 이는 성격이 까다롭고 예민한 남자주인공에 대해 창작된 소설은 많지만, 독자들이 이런 캐릭터에 대해 비교적 덜 선호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실 까칠남 캐릭터는 2000년대 초 창작되던 인터넷 소설에서 인기를 얻던 유형으로, 남성 소비니즘의 특성을 지닌 마초로 주로 등장해왔다.[16] 남성 캐릭터와 여성 선호도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본 결과, 현대의 웹소설에서 까칠남의 인기가 떨어진 것은 해당 캐릭터에 대한 여성 독자의 선호도가 달라졌음을 시사한다. 이와 유사하게 인터넷 소설에서는 여자주인공의 캐릭터도 가녀리고 수동적인 모습이 인기를 얻었으나, 웹소설에서는 좀 더 자신감 있고 능력

있는 캐릭터가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랑과 상호소통 속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현대의 변화된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3.4. 여자주인공의 특성

남자주인공의 인기 키워드가 이상적인 모습이 두드러진 것과 대비되게, 여자주인공과 관련해서는 ‘상처녀’가 6위로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다. 로맨스 소설이 여자주인공 시점인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이 대부분이다. 또한, 독자가 주인공의 심리에 감정이입을 하며 소설을 읽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여러 외적 시련으로 내면 속에 상처를 지닌 ‘상처녀’는 현대 여성이 가장 크게 공감하고 동일시한 대상으로 볼 수 있다.

기존 연구는 최근 로맨스 서사의 가장 큰 변화로 ‘계급 상승에 대한 여자주인공의 체념적 태도’를 꼽았다. 여자주인공은 신데렐라 스토리를 꿈꾸면서도, 정작 백마 탄 왕자님과 같은 남자주인공을 만났을 때 그런 계급 상승에 대한 꿈을 체념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IMF 이후 심화된 경제 불평등이 현대 한국의 로맨스 서사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을 보여준다.[17]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의 사회경제적 변화는 현대 여성의 삶의 모습에 큰 영향을 미쳤다. IMF 이후 남성 1인 생계부양자 모델이 와해되자, 많은 여성이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감수하며 노동 시장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전통적으로 여성의 일로 여겨지던 가사노동은 새로이 재분배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여성은 이중노동을 짊어져야 했는데, 기업은 이를 근거로 하여 여성들의 적은 임금과 비정규직 환경을 합리화했다. 따라서 최근의 현대 여성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립할 수 없음에 좌절하는 동시에, 이중노동이 당연시되는 결혼 역시 선택할 수 없는 현실에 놓이게 되었다.[17-18]

즉, ‘상처녀’ 키워드의 인기와 그리고 현재 한국 사회의 초혼 연령의 상승과 함께 전문성을 지닌 미혼 여성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는[17], 위로가 필요한 현대 여성 노동자의 상황을 보여준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웹소설 이용자에게 소구력 있는 모티프를

파악하여 웹소설 이용자가 가진 독서욕망을 진단하려 하였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전자책 플랫폼 내 스테디 셀러 웹소설 작품이 공통적으로 갖는 키워드를 웹 크롤링의 방식으로 추출하였다. 또한, 이차적으로 해당 키워드(모티프)는 이용자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기존 문헌을 근거로 분석했다.

웹소설 작품 배경의 경우 기존 연구가 판타지물과 역사물이라는 배경에 치중해있던 것과 달리 웹소설 작품은 현대물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 압도적으로 많고, 인기도 높았다. 이는 가독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웹소설 환경에서, 독자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선호된 것으로 보인다.

웹소설 작품 유형의 경우 성인 작품이 압도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나 이는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양상이며, 그 중 집착과 소유욕과 관련한 모티프가 인기가 있던 점은 현대인의 외로움과 관계중독 증상과 관련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

남자주인공의 경우 일반적인 로맨스 남자주인공에게 기대되는 것과 부합하게 ‘능력’, ‘다정’, ‘순정’과 같은 이상적인 키워드가 제시되었다. 반면, ‘까칠남’으로 까탈스러운 성격의 남주인공의 경우 창작되는 것에 비해 독자의 선호가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2000년대 향유되던 인터넷 소설에서는 마초적이고 까탈스러운 ‘까칠남’이 인기가 높은 남자주인공이었으나, 현대에 와서는 그러한 경향이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대의 젠더 관념의 변화와 관련지어 이해될 수 있다.

여자주인공의 경우 내면적 상처를 지닌 ‘상처녀’가 가장 인기가 높았다. 사회의 경제 구조적 변화와 그에 따르는 여성의 어려움에 따라 로맨스 서사에도 여자주인공의 계급상승에 대한 체념적 태도가 논의되고 있다. ‘상처녀’ 키워드는 이러한 경제 및 사회구조적인 좌절을 겪는 현대 여성 독자가 가장 공감하는 키워드로 보았다.

로맨스, BL 장르에서 성인 작품의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웹 크롤링 상의 문제로 웹소설 전체 작품을 분석할 때 성인 작품을 제외하고 진행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인문학적 시각에서만 바라본 정성적 연구방식과 달리, 본 연구는 웹소설 연구에 키워드라는 파라텍스트를 활용한 정량적 연구라는 관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ACKNOWLEDGEMENT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MIST (Ministry of Science and ICT), Korea, under the National Program for Excellence in SW supervised by the IITP(Institute for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Promotion)" (20150009 080031001),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2017R1D1 A1B03035557) and Ajou University research fund.

REFERENCES

[1] K. Kim, "A Study on the Structure and Ideology on the Romance Web fiction," *The Journal of Modern Literary Theory*, vol., no. 62, pp. 63-94, Sep. 2015.

[2] N. H. Son, "The expression of our time," *Literary Criticism Today*, pp. 132-151, Mar. 2018.

[3] H. Han, "The media adaptation and narrative structure of Korean web novel- focused on royal court romance," *The Research Society Of Language And Literature*, vol. 91, pp. 263-291, Mar. 2017.

[4] B. Choi, "A Study on the Narrative Form of Korean Web Novels," *Journal of Popular Narrative*, vol. 23, no. 1, pp. 65-97, Feb. 2017.

[5] H. Han, and J. Kim, "A Study on Multimodality of Korean Web Novel," *Journal of Popular Narrative*, vol. 21, no. 1, pp. 263-292, Apr. 2015.

[6] Ridibooks. [Internet]. Available: <https://ridibooks.com>.

[7] Bookcube. [Internet]. Available: <https://www.bookcube.com>.

[8] Joara. [Internet]. Available: <http://www.joara.com>.

[9] Honeymun. [Internet]. Available: <http://www.honeymun.com>.

[10] S. Ahn,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regression motifs in Korean web novels," *Korean Literary Theory and Criticism*, vol. 22, no. 3, pp. 279-307, Sep. 2018.

[11] H. Han, and E. Chung, "A Study on the Narrative Features of Korean Web-Based Women Novel," *The Journal of Literary Creative Writing*, vol. 14, no. 2, pp. 81-105, Aug. 2015.

[12] H. Han, "Women's Creation through Digital Storytelling : Romance Novels on the Web," *Journal of Human Studies*, vol. 34, pp. 37-64, Jul. 2017.

[13] K. Kim, *Romance Web fiction*, Seoul, Seoul: Communication Books, 2017.

[14] O. Ogas, and S. Gaddam, *A Billion Wicked Thoughts: What the World's Largest Experiment Reveals About Human Desire*, New York, NY: Dutton, 2011.

[15] Y. H. Kim. "Relationship addiction which is endlessly obsessed with others is more dangerous than drugs," [Internet]. Available: <http://weekly.donga.com/List/3/all/11/96866/1>.

[16] M. Kim, "The Model of the Male and Female which shown in the digital generation Literature and image," *The Society of Korean Modern Literary Criticism*, vol. 0, no. 62, pp. 423-452, Aug. 2008.

[17] M. Y. C. Hwang, "Women's Romance Fantasy in the Age of Non-regular Workers," *Journal of feminist theories and practices*, vol. 0, no. 29, pp. 231-240, Dec. 2013.

[18] T. H. Kim, and M. S. Lee, *Modern Society and Women*, Seoul, Seoul: Gyomoon Publishers, 2011.

조수연(Suyeon Jo)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 관심분야 : 문화콘텐츠 및 텍스트 마이닝

오하영(Hayoung Oh)



2002 덕성여자대학교 전산학 학사
2001~2004 신한금융지주회사 e신한
2006 이화여자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석사
2010년 U.C.Berkeley 방문연구원
2013년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박사
2013년~2016년 숭실대학교 전자정보공학부
2016~현재 아주대학교 다산학부대학 조교수
※ 관심분야 : 소셜정보망 및 데이터 분석